**해외 인턴쉽 경험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름 | 한 글 | 우유희 | | 영 문 | | Yuhee Woo |
| 학과(전공) |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 | | 학 번 | | 20120094 |
| 인턴쉽 기간 | 2015년 3월 23일 ~ 2015년 7월 12일 | | | | | |
| 근무 회사명 | Content That Works | | 근무 부서 | | Editorial Team | |

**1.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 기본정보

WEST 프로그램이란 정부지원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하나로, Work English Study Travel 의 약자이며 한미취업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한,미 양국의 협의 하에 만들어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5년간 지속되었다가 작년에 5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은 크게 어학연수 4개월, 인턴십 24주(연장가능)인 정규 WEST 와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16주(연장불가)인 Compact WEST 로 나눌 수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국제교육원에 의하면 어학연수가 3개월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Compact WEST 2기로 2015년 1월에 출국하여서 6개월간 미국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규WEST를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여 최대한 자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WEST 프로그램은 일단 미국에 출국한 이후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n 개월동안 수행하며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 인턴십할 회사를 구하는 구조 입니다. 또한 구직과정에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는 지원자의 구직과정을 도우며 인턴십할 회사를 구해주는 일, 비자관련 서류를 처리해주는 일 등 말그대로 ‘sponsor’ 가 되어줍니다. 구직하는 회사와 지원자 간의 징겁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구직을 하지 않고도 미국에 출국 할 수 있는 것은 이 스폰서가 대신 비자관련 서류를 케어해주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에 스폰서는 Cultural Vistas, Kusco, Intrax 3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 지원과정에서 지원자가 하나의 회사를 고르게 됩니다.

따라서WEST 프로그램에서의 주체는 지원자, 한국 국립국제교육원(WEST), 스폰서, 그리고 Host Company(일하는 회사) 가 됩니다.

2) 장단점

장점 :

1. 정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가지를 내포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주관하다 보니 어느정도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설 워킹 홀리데이 처럼 오렌지농장이나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국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제가 참가한 Compact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왕복 항공비(200만원정도) + 인턴 16주간 생활비(한달80만원정도) 가량해서 총 $7000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더 받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TWC등WEST와 유사한 다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매우 많은 액수의 참가비를 요구합니다. 국제팀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의 참가비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그렇기에 정부지원금은WEST 프로그램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유없이 저희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만큼, 일주일에 한번씩 인턴생활보고서를 써야하긴 하지만 크게 번거로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3. 스폰서의 존재 – 많은 분들이 교환학생을 가시면서 현지 인턴 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국 교환학생 시절 현지에서 인턴십을 구하고 싶었지만 비자 문제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있었습니다. 보통 인턴십으로 발급 되는 J1 비자의 경우 구직 이후에 발급됩니다. 즉, 미국 회사에 레쥬메를 보내고 인터뷰를 한 후 입사가 확정된 이후 회사에서 비자 관련 paperwork 를 해주면 그 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턴십을 구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레쥬메를 보내고 인터뷰를 한 뒤 인턴십에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국사람의 경우 커버레터나 영문 레쥬메를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WEST 프로그램의 경우 스폰서가 이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단점:

1. 정부 지원의 한계 :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교육원에서WEST 프로그램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지원금) 뿐입니다. 즉 의식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제교육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황스러웠던 것은 미국 출국에 대한 문제에도 어느 기간에 출국하면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학연수 시작일이 이때니 그 전에 아무때나 출국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참가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 했더니 보통 1박2일 간의 OT에서 친해진 참가자들끼리 함께 출국한다고 하여서 그런 줄 알고 있었으나, 막상 OT 에 가보니 딱히 스폰서가 같은 참가자들끼리 친해질 시간이 없었고 이미 그 전에 WEST 카페에서 단체카톡방을 만들어서 룸메를 구하거나 비행기 동행을 구한 뒤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WEST카페의 존재를 모른채 지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지원시에 카페를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면접 이전부터 단체카톡방을 파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어학연수 기간동안 다른 참가자들과 친해질 기회는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WEST 프로그램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TWC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비에 숙소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숙소를 미리 마련해놓아서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WEST 의 경우 참가자들이 모두 알아서 숙소를 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구하고 가는 경우도 있으나, 현지에서 호스텔과 같은 임시숙소에서 며칠 머물면서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리인지는 서울에 갓 올라온 20살 새내기가 부모님없이, 어른 없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서울에서 자취방을 혼자 구하는 상황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사람이 다 살게는 되어있으므로 다들 집을 구해서 잘 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참가자도 매우 많고 힘든 과정도 매우 많습니다. 안그래도 서러운 외국생활에 100만원 가까운 돈을 사기당하면 멘탈이 더욱더 붕괴되기 싶습니다. 다양한 사기의 사례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교육원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은 1도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똑똑히 대처해야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스폰서의 존재 : 스폰서가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저의 스폰서의 경우 장단점이 매우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했듯 인턴십 배정이 어학연수기간내에 대부분 완료되며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 구직 과정에서 자유성이 떨어집니다. 일단 오퍼가 들어오면 무조건 승낙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절할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스폰서측에서 거의 무조건 인터뷰를 봐야하게끔 만듭니다. 따라서 첫번째 오퍼가 들어왔을때 해당 기업과 직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만사항이 있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차가 있겠으나 기업과 직무가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강하게 어필하시고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스폰서에 지불한만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어필하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원하는 조건이 단 한가지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완벽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오퍼를 받아들였고 해당 기업에서 일할수 있었습니다.
2. 비싼 참가비 : 7000불 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비의 명목으로 5000불 가량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스폰서에 내는 비용 + 어학연수 비용입니다. Compact 의 경우 이정도 이고, 정규 프로그램 참가자에 의하면 참가비가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가는 본인의 판단에 맡길 부분인 듯 합니다.

3) 지원과정

[www.ggi.go.kr](http://www.ggi.go.kr) 정부지원해외인턴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WEST 프로그램 자체는 토익 성적+토익 스피킹 성적+ 학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가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Compact 프로그램의 경우 어학연수 기간이 짧다 보니 토익성적 기준이 이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높은 850점 입니다. 또한 토익스피킹 성적이 필수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나면 국제교육원에서 1차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영어 질문이 있고, 집단토론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정하고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합니다. 영어면접은 그다지 어렵지않으며 차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같은날 인성면접도 보게되나 큰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2차로 자신이 선택한 스폰서와 1:1 스카이프 면접을 봅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3명정도 더 탈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

지원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스폰서기업을 1,2지망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WEST 프로그램에 대해 네이버 등에 검색을 해 보시면 스폰서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스폰서는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3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스폰서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자신이 원하는 직무와 기업, 영어권 국가에서의 체류경험 등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스폰서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적극적이고, 자기의 것을 잘 챙기고 영어권 국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다면 그에 맞는 스폰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영어권국가의 경험이 없고 수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또한 그에 맞는 스폰서가 있을 것입니다.

5) 구직과정

구직과정은 저의 스폰서 기업이었던 CV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프로그램 지원당시 스폰서측에 자신이 원하는 산업, 직무 등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스폰서 기업의 그간의 호스트 컴퍼니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있는 회사 목록을 보내게 됩니다. 스폰서는 지원자를 선발할때 이를 모두 고려하여 선발하게 됩니다.(구직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기때문에 일단 선발되고 나면 미국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되면 2차적으로 스폰서측에서 프로그램 시작 후 1주일 전후로 스폰서의 기존의 호스트 컴퍼니 목록 중에서 3개, 그리고 자신의 dream company 3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host company 를 적을때 대충 아무데나 적으시면 후에 그 기업에서 인터뷰 오퍼가 들어왔을때 거절하기가 매우매우 힘든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매우 바쁘고 정신,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dream company 를 적는다고 해서 UN이나 CNN 같은 터무니 없는 기업을 적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스폰서 측에서 이 부분(한국 학생들의 미국 기업에대한 이상?로망? 등)에 대한 굉장한 피로도가 있는 듯 합니다. Dream company에게도 스폰서가 레쥬메를 보내니, 이상과 현실에 잘 균형을 맞춰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그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레쥬메를 기업에 스폰서가 뿌리게 됩니다. 모든 인터뷰 과정을 스폰서를 중간에 두고 이루어집니다. 인터뷰 오퍼가 들어오면 스폰서를 통해 연락을 받고, 인터뷰를 본 후 스폰서를 통해 인터뷰 합불여부를 알게 됩니다.

**2. 회사에 대한 소개 (회사의 사업영역 및 근무경험을 통해 알게된 사항 등)**

제가 일했던 Content That Works 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Content 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Content That Works 는 본디 신디케이션 회사로 콘텐츠(기사)를 자체적으로 생성한 뒤 미국 전 지역및 캐나다 일부의 신문사, 잡지사에 그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기사를 제작하는 잡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Online을 기반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인쇄된 기사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결혼, 육아, 차량, 홈디자인, 등등 여러 주제에 관련된 기사를 생산하고 이것을 다른 잡지사나 콘텐츠를 필요로하는 곳에 판매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모두의 공통 난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혁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서게 됬고, 현재 그에 따라 Native Advertising,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종합적 콘텐츠 솔루션 컴퍼니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즉, 최근 디지털시대에 콘텐츠 이용방법이 변화함에에 따라 콘텐츠 마케팅 쪽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콘텐츠' 라고 믿는 것이 현재 CTW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3. 근무 부서, 수행업무에 대한 소개 (회사내에서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영역 등)**

저는 CTW 의 Editorial Team 에서 editorial intern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으로 맡은 일은 부동산에 관련해 회사에 업로드 되어있는 기사들을 읽은 뒤 real estate 에 관련된 기사를 요약하는 brief 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한번씩 발행되는 real estate weekly 에는 주요 부동산 매체에서 발행한 기사의 brief 가 매번 하나씩 들어가므로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 저의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발행하는 수많은 주제들의 기사를 주제별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기사의 레이아웃으로 만드는 디자인 작업도 하였고 이를 위해 Indesign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또한 자유 기사를 작성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인터뷰부터 기사작성과 디자인까지 모두 저의 손으로 작성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턴으로서의 잡무, 즉 콘텐츠 업로딩이나 기사에 쓸 사진 크기 조정 등도 있었습니다.

**4. 근무소감**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 경험이 없기 때문에 CTW가 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보통의 한국 회사에 비해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하더라도 CTW 는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지켜지기 때문에 5시 퇴근이면 5시 1분에 집에갔습니다. 또한 아프거나, 급한일이 생기면 이메일로 회사팀원 전체에게 말하면 모두 오케이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턴이 잡무를 하는 아주 말단 직원이기에 거의 발언권이 없다면 미국에서는 무급인턴이기에 자신이 경험하고 싶은 것은 다 도전할 수 있고, 못해도 혼나지 않으며 가장 적은 책임이 있기에 가장 적에 일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작성해본 경험이 거의 없고 특히나 영어로 작성하는 일이 처음인데도 저의 슈퍼바이저는 항상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며 제 기사를 첨삭해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셨습니다. 인턴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 자신이 얻어갈 수 있기때문에 더 원하는 일이 있다면 더 어필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회사에 자기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오거나, 점심시간에 비비큐 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사장님과 말단 인턴이 한자리에 모여서 팀 회를 하는 등 CTW 는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잡지사 특유의 분위기인지 미국회사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는 확언할수 없겠지만 대체로 미국 기업은 한국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많은 것을 얻어갈수도 시간낭비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마치며**

WEST를 처음 지원할 당시 주변에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지원을 완료해야 해 매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고자하면 모두 가능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욕심이 있다면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WEST에 대해 무급으로 왜 미국까지 가서 일을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각자의 대답이 다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왜 무급으로 이곳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찾아오는 것도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다녀온 것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으며, 분명히 인간적,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도 돈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경험은 없지만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에 시간낭비라고 생각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행이든, 영어공부이든, 직무경험이든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고 돌아오면 시간낭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때때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귀중한 경험을 하러 가는 시간인 만큼 본인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만큼 다른 이들의 시간과 노력도 귀중하게 생각하여, 내 욕심만 채우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 서강인이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지원과정이나 전반적인 WEST 생활에 있어서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lucia.yuhee@gmail.com](mailto:lucia.yuh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